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5년도 표어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생활지침 ◎

- 1.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주를 위하여 섬기는 교회가 되자
- 2.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자
- 3.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殿)을 건축하자

발행인: 이 중 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95 추수감사절과 교회설립 4주년 행사

다음 주일 성찬식과 감사찬양예배, 비전 2000 운동 승전감사예배

오늘 찬양예배 시에는 교회학교 찬양대의 감사축제도

다음 주일은 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95 추수감사절이다. 아울러 천국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라는 3대 목표를 세우고 우리 교회가 시작한지 4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이기도 하다.

감사와 감격이 가득한 날에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삶에 동참하고자 하는 각오를 새로이 하면서 I, II, III부 예배 시에는 성찬예식을 거행하며 감사헌금을 드리는 순서도 갖는다. 예배가 마친 후에는 교회당 앞에서 축하의 떡잔치도 벌일 예정이다.

다음 주일 찬양예배 시에는 가브리엘 찬양대가 준비한 감사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에 앞서 오늘 찬양예배 시에는

탁아부, 유치부, 유년부 등 교회학교 찬양대의 감사축제가 있다.

우리교회는 교회설립에 앞서 7주간의 기도를 갖고 50일째 되는 1991년 11월 24일 오후 3시에 설립예배를 드렸다. 해마다 전개하는 비전 2000운동은 설립 당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우리의 각오를 상기하는 의미에서 설립 50일 전, 기도와 전도의 운동을 펴는 것이다. 따라서 올해도 지난 10월 8일에 시작한 '95비전 2000운동이 다음 주로 50일을 맞게 되고 찬양예배 시에 '95비전 2000운동의 승전보고를 드리게 된다.

4년 전, 설립 예배 시에 말씀을 통해 제시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리스도의 지체로 섬기

며,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참된 교회상' 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도 돌아보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바 많은 은혜들을 헤아려보며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다음 주일을 맞아야겠다.

비전 2000운동 43일째

오늘은 전교인 만남의 날
**그간 뵈고 싶었습니다,
서울교회 가족여러분!**

좀 더 성숙한 1996년을 위해

아름다운 마무리로 분주한 연말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한 해를 살게 해 달라고 간구하며 새 마음으로 시작한 1995년도도 이제 좀 더 성숙한 내년을 위해 잘 정리할 때가 되었다. 벌써 몇몇 부서들은 총회를 시작했고,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수립하고 수고할 일꾼들을 정하는 등 교회는 아름다운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움직임들로 분주하다.

오늘 찬양예배 시에 있을 교회학교찬양대의 추수감사 축제를 비롯하여 다음 주일의 감사절행사와 각부서 총회, 일꾼 임명식, 성탄절 등 연말까지 계속될 교회 행사 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교

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헤아리는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며 참여해야 할 것이다.

▼ 연말연시 교회행사

행사명	일시 및 담당부서
추수감사절 및 교회설립 4주년 감사 찬양예배	11월 19일(주일) 찬양예배 시 · 찬양 / 교회학교 찬양대
추수감사절 및 교회설립 4주년 기념 감사예배	11월 26일(주일) I, II, III부 예배 시 · 성찬예식, 감사헌금, 떡잔치
비전2000운동 승전 감사예배	11월 26일 (주일) 찬양예배 시 · 찬양 / 가브리엘찬양대
권사회 총회	12월 1일(금) 오후 7시
남·여전도회 총회(지회별)	12월 2일(토) ~ 7일(주일)
서리집사 및 교구일꾼 임명	12월 3일(주일) I, II, III부 예배 시
교구총회	12월 3일(주일) III부 예배 후
찬양대 총회(찬양대별)	12월 8일(금) ~ 12월 21일(목)
찬양대원 임명	12월 10일(주일), 13일(수)
교사임명	12월 17일(주일) I, II, III부 예배 시
'95 성탄 축하 찬양예배	12월 24일(주일) 찬양예배 시 · 찬양 / 가브리엘찬양대
'95 성탄절 새벽예배	12월 25일(월) 오전 5시
'95 성탄 축하 예배	12월 25일 (월) 오전 11시
특별제직회	12월 31일(주일) 찬양예배 후
송구영신예배	1월 1일 (월) 0시
신년 감사예배	1월 7일(주일) I, II, III부 예배 시 · 성찬예식, 감사헌금
공동의회	1월 7일(주일) III부 예배 후
순결서약식	1월 7일 (주일) 찬양예배 시
'96 침지기 수련회	1월 7일(주일) - 15일(월)



▲ 권사회 수련회- 지난 16일과 17일에 권사회 수련회가 있었다. 기도의 어머니들인 권사님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뜨거운 기도를 드리며 한마음이 되었다. 수련회를 마치고 내려 오기 전, 예수님이 좋고 감사해서 덩실 덩실 춤을 추기도 하셨다고

창세기
강해



부끄러운 야곱

(34장 1 - 31절)

이종운 목사

성경 속에 우리 입에 오르내리기에도 부끄럽고, 전혀 은혜스럽지 못한 이야기가 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 43장을 어떤 학자들은 주해하려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은 성경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조상들의 치졸한 이야기까지 다 기록하여 인간의 죄성과 악함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 속에도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1. 야곱은 거처를 잘못 정했습니다.

환경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영적인 환경은 그 영향력이 매우 큼니다.

야곱이 숙곳으로 거처를 정한 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용서와 사랑을 확인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와 떨어져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숙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기르기 위한 안전하고 기름진 초장을 찾아간 것이기도 했습니다. 오랜 타국생활 속에서 그의 마음에는 도시를 선호하게 되었을런지도 모릅니다(창33:19). 자신의 순례의 길은 끝이 났고, 이제는 정착할 보급자리를 마련하고자 한 의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은 "마음에 들어서 거처를 정했다"는 자세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랠야 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렘17:9)을 우리 자신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가는 곳에 집을 세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시는 곳에 우리 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곳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방랑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거주지를 왜 지금 살고 있는 곳으로 정했습니까? 이웃, 자녀교육, 직장 문제 등 고상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같은 이유는 세속적입니다. 혹 어떤 이는 교회나 자녀의 영적인 문제, 하나님께 더 봉사하려는 이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거처를 옮깁니다. 영적으로 가장 적지가 어디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2. 야곱은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는 그 땅 여자들을 만나러 나

갔다가 봉변을 당합니다(1절). 세계 성 부근에 살면서 그 성을 보고 싶어 나간 디나의 마음에는 악한 동기가 없었습니다. 부모의 무지가 자녀를 방임한 것입니다.

야곱이 세계에 온 것도 잘못이지만 에서를 속이고 숙곳(세계)으로 간 모습을 자녀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야곱이 거짓말 시킨 일과 하물이 자기 아들 세계와 디나의 결혼 제의가 있었을 때에도 세계 사람들의 무할례를 거론한 것도 종교적이유라기 보다는 그들에게 원수 갚기 위한 기회를 만들려한 거짓된 마음을 자식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일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 앞에 적은 수로 당할 수 없고 죽게 되었다고 아들들에게 불평을 털어 놓았습니다(34: 30). 자녀 앞에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야곱은 자녀교육에 있어서 실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영적인 연약함을 지적할 수 있겠으나 현대인들도 바쁘다는 핑계로, 또는 자녀들이 부모를 싫어하게 될까봐 자녀 교육을 가르치는 예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르칠 바를 과감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3. 야곱은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다말을 범한 후에 그는 그녀를 미워했습니다(삼하13:15). 그러나 세계는 디나를 사랑하여 결혼하기를 청했습니다(34:3절 이하). 세계의 아비 하물이 디나를 며느리로 달라고 했을 때 야곱은 이를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야곱은 정착하지 못한 나그네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하물의 아들 세계는 그 땅의 처리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안을 열어 세상에 만연한 죄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이 악은 불신자의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삶과 마음 속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계와 야곱을 비교할 때 누가 더 큰 악을 행했다고 하겠습니까? 결혼하기를 원하고 화친을 청해 온 세계는 진정으로 디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런 반면 야곱의 가족들은 그들의 제안과 관용을 거부하고 자존심이 상했다는 이유로 격노하며 세계 사람들을 보복 살육합니다. 할례를 받으면 함께 교제하겠노라고 언약한 것도 지키지 않고 자기 누이를 창녀 취급하였다 하여 약속을 깨뜨립니다. 세계는

자기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물은 재산의 증식을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보복하기 위해 각각 하나님의 법(할례)을 악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야곱의 아들들이 더 잔인합니다. 세계인들이 할례받은지 3일만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갑자기 그들을 살육했으며 디나를 세계의 집에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그 성에 들어가 노략질을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야곱의 모습은 거처를 잘못 정하고, 자녀에 대한 책임도 다하지 못했을 뿐더러 약속을 파기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는 가나안을 포기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성품을 교정하고 새롭게 하시려고 계속 그를 가르치셨습니다. 결국 임종이 가까와 왔을 때 야곱이 아들들을 위해 한 기도에는 죄의 심각성을 깨달았음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허물 많고 연약한 야곱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사 이스라엘의 조상을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베푸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 순례자 컬럼 ✦

"감사하며 살자"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을 윤택하게 산다. 한날의 시작을 감사로 출발한 사람은 그날을 원망으로 얼룩지게 할 수 없고 주신 음식을 감사하면서 먹는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 도적질을 하지 못한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인생을 행복하게 산다. 인생을 감사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행복이요 기쁨이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으로서 의무를 다하게 된다. 감사란 은혜의 보답이며 보답은 은혜를 입은 자의 의무다.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하고 제자가 스승에게 감사하듯 국민은 국가에 감사해야 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부모도, 스승도, 그리고 사랑하는 조국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 반드시 큰 것에만 감사를 드리지 말고 작은 것부터 감사해보자. 그리하면 감사할 일이 더욱 많아질 것이다.

■오늘을 생각하며

우리 앞에 닥친 도전과 시련의 극복 - “복음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번 생 (집사, 대학부 교사)

작금의 여러가지 현상들을 볼 때, 우리 민족에게 또 다른 비극과 불행은 초래되지 않을지 심히 두려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6. 25전쟁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다만 멈추어져 있을 뿐이며 휴전 상태일 뿐인데 우리들의 생각은 마치 전쟁은 끝났고 평화가 정착된 것처럼 착각하고 망각하고 있으니 한심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과 북이 분단되고 민족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이 현실에서 지금의 사회적 혼란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안타깝고 허탈하며 괴롭습니다.

민족정신은 찾아볼 수 없고 사치와 퇴폐가 가득한 현실에서 사회 정의는 사라졌고 법과 질서는 지켜지지 않고 도덕과 윤리는 땅에 떨어졌으며 인간의 존엄성은 상실되고 있습니다. 물질과 현실, 합리주의가 새로운 이상으로 등장하여 인간의 삶의 참된 가치가 혼돈 속에 처한 무질서 뿐입니다. 여기에 정치적 불안과 혼란은 그칠 줄 모르고 지도자들의 추한 모습만 나타나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일찍이 우리 민족은 닦쳐왔던 많은 환란과 역경 속에서도 굳건히 나라를 지켜 오늘의 번영을 갖게 되었음은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 앞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찌르는 가시까지 주셨음은 큰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죄악을 회개치 않으니 남과 북을 나누시어 세계 앞에 수치심을 갖도록 하셨지만 사실은, 용서함받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려고 작정한 것임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혼돈과 불안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여겨집니다. 능력의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오늘의 위기를 발전의 기회로 전환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을 때 지금의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여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민족과 죄악의 허물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 회개는 민족 전체가, 또 믿는 모든 기독교 성도들이 다 해야 하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내가 존재하고 있는 민족을 위해서 나 자신이, 내가 모두의 죄악을 나 자신의 죄악으로 알고 회개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민족의 죄악을 자신의 아픔으로 알고 마음을 찢어 회개함으로써 용서함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찌르는 가시를 주셨음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 회개하고 용서함 받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작정한
것임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득한 곳에 남북의 화해와
동서 화합이 보장되며 정치 경제가 회복되고
진정한 윤리 도덕이 회복될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오늘의 위기를 발전의 기회로
전환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회개가 있는 곳에 변화가 일고 변화된 속에서 새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삶은 신뢰를 회복시키고 냉소를 떨쳐 버릴 수 있습니다. 의욕과 열기가 가득한 곳에 패배와 좌절은 사라지고 국민의 기쁨과 희망이 넘쳐흐를 것입니다.

아울러 참 지도자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민족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고 철학과 이상을 가진 지도자, 용기를 가지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지도자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겸손한 지도자, 우리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진실한 지도자, 창조적으로 미래를 일구어 가는 능력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의 지도자가 민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득한 곳에 남북이 화해되고 동서가 화합하며 정치 경제가 되살아 나고 윤리 도덕이 회복될 것입니다. 복음이 가득한 곳에 진정한 나라 사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쁨으로 감사찬양을 준비하며

“사람이 무엇이관대...”

손 지 희 (가브리엘 찬양대원)

하늘은 높고 푸름을 뽐내고 울긋불긋 한 나뭇잎들은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쟁그랑거린다. 주말이 되면 저마다 좋은 장소를 찾아 나서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주로 젊은이들로 구성된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는 토요일 오후를 감사찬양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교회로 모인다. 교회 설립일과 추수감사절에 드릴 찬양을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실 것을 생각하면서 계절의 아름다움으로 인한 주위의 온갖 유혹을 떨치고 나오는 것이다.

우리 찬양대에는 감사할 일이 많다. 먼저, 하나님께서 영적인 성장과 더불어 양적인 성장이 있게 해주셨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지금은 양쪽 찬양대석에 나누어 앉을 수 있을만큼 넉넉하게 채워주셨다. 항상 아무 말씀없이 다니시며 두루 살피시는 대장 장로님, 불편한 중에도 온 몸을 드러 열성적으로 지휘하시는 지휘자님,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신앙의 선배로

■...교회설립 기념일과 추수감사절에 드릴 감사찬양을 준비하기 위해 주말마다 가브리엘 찬양대원들은 계절의 아름다움으로 인한 주위의 온갖 유혹을 떨치고 나와 연습에 열중하였다. ... 어찌 그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다 열거할 수 있으랴! 삶 그 자체가 찬양일 수밖에 없는 것을. ...■

서 모범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우리 모두가 누리는 큰 복 중의 하나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추수감사절과 교회 설립 4주년을 기념하는 날에 온 성도를 대표하여 우리 찬양대가 감사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하다.

어찌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다 해야될 수 있으랴! 삶 그 자체가 찬양일 수밖에 없는 것을. 벽찬 감격으로 시편 8편의 다윗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가슴 깊이 새기면서 오늘도 우리의 감사 찬양은 새로이 세워질 여호와와의 전을 향해 힘차게 뻗어 나간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 이 생명을 주옵소서!

'95비전 2000운동 태신자 명단

전도자	태신자
오충예	정판식
오도식	양승걸
김경아	김다연
김태기	정영근 양진환
최일춘	이윤섭 이경자 이준석
마상수	박광수 김정희 김형우

■ 소식

청년부의 예수사랑, 예수바람

오늘, 교회 앞에서 헌혈운동 다음 주일엔 Home Coming Day 행사도

청년부에서는 대한적십자사의 협조를 받아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회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헌혈운동을 편다.

헌혈에 참가하려면 16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남자인 경우 55Kg, 여자인 경우 45Kg이상의 체중이어야 하며 간단한 검진(혈압, 맥박, 혈액비중)에 통과하여야 하고 헌혈한 지 6개월 이상이 경과된 사람이어야 한다. 병이 있거나 감기약 등을 복용 중인 사람은 헌혈할 수 없다.

한편 청년부에서는 기도로 예수님을 닮는 '예수 사람' 이 되고, 전도로 '예수 바람' 을 일으키자는 취지에서 "예수 사랑, 예수 바람" 이라는 표어를 걸고 <100청년 운동>을 펴고 있다.

특별히 기도와 전도운동인 비전 2000운동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일(26일)을 청년부 Home Coming Day로 정했다. 회장인 정규호 형제는 "청년부와 관련 있었던 모든 이들 뿐 아니라 청년부의 잃은 양들, 아직도 청년부 출석을 망설이고 있는 청년들을 초대하는 대대적인 청년 축제의 날이 될 것" 이라며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고 있다.

고등부 총회

고등부에서는 지난 주일(12일) 총회를 가졌다. 투표를 통해 하영인 자매가 회장에, 황종훈 형제가 부회장에 선출되었다. 고등부 역사상 최초로 여자회장이 탄생한 것.

총회를 마친 고등부는 새로운 임원진의 구성과 해마다 가지는 찬양과 문학의 밤인 <아니노스의 밤> 을 12월 중에 갖기로 계획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하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임서리집사 면담

1996년도에 신임 서리집사 후보 면담 및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통보를 받은 서리 집사 후보는 가능한 시간을 택하여 3차 중 한번 씩의 면담과 교육에 응하면 된다.

* 면담 - 1차 / 21일(화) 오전 6-7시,
2차 / 22일(수) I부 예배 후
3차 / 22일(수) II부 예배 후

* 교육 - 1차 / 28일(화) 오전 6-7시 30분,
2차 / 29일(수) I부 예배 후
3차 / 29일(수) II부 예배 후

<순례자> 지령 200호

<순례자>는 오늘로 지령 200호. 다음 주일로 창간 4주년을 맞습니다. 그간 기도로 밀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좀더 알찬 내용으로 꾸며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순례자>에서는 특약기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원고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순례자> 편집부 -

■ 응원식 -

입시생들에게 보내는 부모님, 목사님, 선생님, 그리고 선배들의

사랑의 메시지

●... 시험은 성패(成敗)의 문제가 아니라 성숙의 한 과정일 뿐! 하나님의 관심은 논술의 짜임새 있는 전개나 수학의 정답을 하나더 쓰는 일 혹은 내신을 한등급 더 올리는 일 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는 것에 있으시다. 따라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성공자도, 실패자도 같 길은 오직 우리를 성숙시키시는 주님께 감사로 영광돌리는 그 한 길 뿐이다. <원호 목사>

●... 우리들의 지식과 지혜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따뜻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권윤경 집사>

●... 입시생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향하여 거처가는 한 단계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로 승리합시다. <최형렬 집사>

●... 사랑하는 입시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로 반드시 최선의 결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시험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영기 장로>

●...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3:5) 하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점수에 낙오자 없기를 <채수풍 / 대학부>

●... 힘과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최선을 다하세요. <황지영 / 대학부>

●... 이제 너는 들으라 너를 지으신 분, 내가 날 때부터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종, 나의 아이들아! 내가 택한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떨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나 밖에 다른 신이 없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 이사야 44장 중에서 - <박귀환 목사>

■ 목회자동정 ■

* 이종운 목사는 오는 23일(목)에 기독교방송국 1995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인도한다.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9시30분
대전 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6시5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매주일 오전 8시 30분~9시
「새벽의 강단」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20분~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2. 입시생들에게 평안과 지혜를 주셔서 기간 쌓은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3. 비전 2000운동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4. 연말 연시 행사들이 은혜 중에 진행될 수 있도록
5.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센터가 될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6. 국가적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 기도회	오후 9시
새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